



제 87 호

# 경상북도 의회소식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5. 1.



## 지면안내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정소식 / 외정만평 2~3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신년사 /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li> <li>-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소식</li> </ul> </li> <li>■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영길 농수산위원장,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기고 5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자원 경북경찰청장 / 함께하는 협력차안으로 안전과 질서 확보</li> </ul> </li> <li>■ 상임위원회 활동 6~13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화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 여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정질문 / 5분 자유발언 1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정질문 · 김수운 · 최태림 · 이수경 · 최병준 · 박현국 의원</li> <li>- 5분 자유발언 · 황아주 · 이태식 · 정영길 · 남진복 · 김창규 의원</li> </ul> </li> <li>■ 주요 처리인건 소개 / 건강칼럼 15면</li> </ul> |
|---------------------------------------------------------------------------------------------------------------------------------------------------------------------------------------------------------------------------------------------------------------------------------------------------------------------------------|--------------------------------------------------------------------------------------------------------------------------------------------------------------------------------------------------------------------------------------------------------------------------------------------------------------------------|----------------------------------------------------------------------------------------------------------------------------------------------------------------------------------------------------------------------------------------------------------------------|



2015년 신년사

# 신도청 역사적 개청,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찬란한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에는 우리나라 국운이 날리 퍼지고 경북도정의 모든 분야에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러 각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5년 을미년은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신도청의 역사적 개청과 아울러 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 경북도의회 의사당에도 새로운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은 새로운 기운과 동력으로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배

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진실로 도민 위주의 희망 행정을 펼쳐토록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비롯해 FTA 개방 파고에 신음하고 있는 농어업의 현실 등이 우



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만, 300만 도민의 흠어진 에너지를 한데로 결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 육성과 창조경제의 역량강화로 미래 경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FTA 파고를 극복하는 내고향 농산어촌을 지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청 시대에 걸맞는 4대 균형발전축 육성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고, 문화경북의 위상을 세계속에 드높이고, 도민안전을 빈틈없이 챙기면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경북의 혼과 정체성을 대한민국 정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의정 목표로 삼고,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올해는 개인과 가정이 발전하고 부흥하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1.

경상북도의회 의장 **강대진**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지적·적발위주 보다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2015년 본예산심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274회 정례회는 경상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

국 및 도내 각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적·적발위주 보다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중점으로 감사했다.

11월 21일은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하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1

월 2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도정질문 의원으로는 김수문(의성) 의원, 최태림(의성) 의원, 이수경(성주) 의원, 최병준(경주) 의원, 박현국(봉화)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다.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11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처리하게 되었다.

12월 19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및 현안사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4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 의정만평



### 경상북도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남정해  
편집인: 정병문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북구 영랑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 경상북도의회, 2015년 신년교례회 “도민이 편안한 의회,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최선

경상북도의회는 1월 5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교육감, 김치원 경북경찰청장, 경북도내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2015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회를 가졌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양(羊)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에 따른 철회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 오후 60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장대진 의장은 “독도에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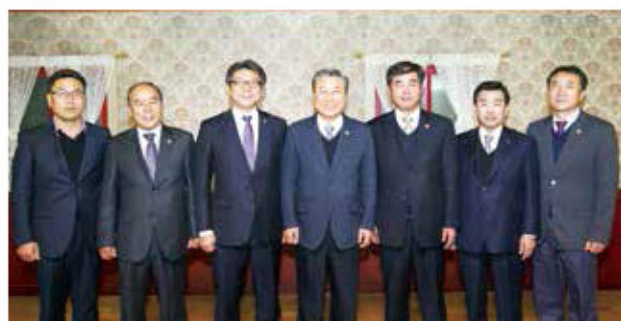
설치로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사업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 새누리당, 도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 의원 당과 지방의회 협조, 지방자치 발전위해 헌신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12월 3일 정수정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광오 선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경상북도의회 의원협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 의원(군위)을 선출했다.



수석부대표에 한창화(포항) 의원, 부대표에 강영석(상주) 의원, 이동호(경주) 의원이, 홍무에 오세현(경산) 의원, 대변인에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정부세종청사 방문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이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11월 27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각각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 국회지방자치와 분권화강화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은 위헌

12월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구축하

고 훼손하는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검토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정책연구위원회, 실질적인 연구활동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의원연구단체 4개를 승인·출발시켜, 2015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의 및 201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 지역 농어업·농어촌 지키기에 혼신의 힘 다할 것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성주 1)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제9대에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재  
선 의원으로서 경북 농어업의 발전  
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인정받아 제  
10대 도의회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  
원장에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농수산위  
원회는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등  
국내외 농어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잘사는 복지 농  
어촌 건설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0대 농수산위원회는 그동안 조  
례안, 예산안 등 총28건의 안건을 심  
사·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의원입법 및 결의안 발의, 도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민원처리 등 다  
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는  
데, 특히 지난 8월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농  
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 9월에는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한·중FTA 등 시장개  
방에 대한 경북 농어업의 대책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에는 ‘한농연 경북  
도연합회’의 경북농업 회생방안 마련

촉구 집회장을 방문해 농업농촌의 현  
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  
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청송가래곡저수지, 청송사와  
유통공사(APC), 경주수협 활어위판  
장 시찰 등 다양한 현지확인을 통해  
농어촌의 현장 지식과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고, 11월에는 ‘한-중FTA 타  
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  
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  
여 농어업인의 생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  
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소속 위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  
취·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 농어업인의 목소리  
와 요구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  
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대책, 가축질병에 대한 능동적 대응  
책 마련, 그리고 농축수산물 제값 받  
기, 농촌인력 부족 대책마련 등 농어  
업·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  
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임  
을 밝혔다. 🍌

## 원칙과 절차 중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경산 1)

경상도 개도 700년과 신도청 개  
막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건설소방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한  
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  
을 밝히면서 ‘항상 도민들과 현장  
소통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더 안전  
하고 더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  
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 하천, 주  
택 등 SOC사업,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소방, 구조·구급 등 도민들  
의 생활과 민생에 깊이 관여된 현장  
중심의 위원회이며 도민들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건설소방위원들과 함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서 민  
원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재선 도  
의원인 윤성규 위원장은 경산시의  
회 3·4·5대 3선 출신으로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제9대 도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제10대 전반기  
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  
는 등 도의회에서는 건설소방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윤 위원장은 임버릇처럼 집행부  
는 절차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할지  
모르지만 의회는 절차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도정 주요 정책들  
이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되지 않을  
시 과감하게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  
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소신  
을 피력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유라시아시대  
대비 사통팔달의 도로·철도망 구  
축, 남부권 신공항 건설, ‘새천년 신  
도읍시대’를 여는 도청이전 명품신  
도시 조성, 북부권·동해안권·중  
남부권 등 도내 권역별 맞춤형 발전  
을 위한 상임위 의정활동을 적극 전  
개하는 한편, 각종 재해·재난과 화  
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현장중심의 민생 위원  
회,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 소  
속 상임위원들과 함께 지역균형개  
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으며, 항상 도민의 입장  
에서, ‘사람 중심이 되는 안전한 건  
설소방’, ‘현장을 중시하는 건설소  
방’, ‘시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건설소방’으로 발전해 가는데 일익  
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 함께하는 협력치안으로 안전과 질서 확보

김치원 경북경찰청장



도약과 행운을 상징하던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양을 닮아 평화로운 청양(靑羊)의 해 희망찬 을미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특히 신도청시대의 원년으로 기억될 2015년은 우리 경상북도에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을 맞게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시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 자치시대를 개막한 이래로 이제 20살의 어엿한 청년이 된 것이다.

비록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민선 6기가 맞이하게 되었지만 지난 20년간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양분 삼아 이제는 새로운 도약, 지방자치의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경찰의 치안행정도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그 나라의 펀더멘털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치안'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1998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5.8% 감소하고 실업률이 6.8% 상승하는 동안 범죄발생률이 11.2%나 급증하였으며, 서울의 비즈니스 경쟁력 조사 결과(2011년 맥킨지조사) 치안이 IT 인프라에 이어 두 번째로 꼽히기도 했다. 이처럼 치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경북경찰은 우리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북경찰」을 모토로 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각종 강력 사건이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도민의 안전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치안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기초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급한 순간에는 1분 1초가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 내에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커다

야할 일이다.

셋째, '삶의 질'과 직결되고 도민 행복의 토대가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경찰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갈취·폭력사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찢다방 등 어르신 대상 사기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 등을 척결해 나감으로써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는

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인력의 증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치안력 확보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치안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 우리 도내에는 자율방범대(421개 대 9,852명), 녹색어머니회(257개 교 21,701명), 모범운전자회(24개 지부 1,530명)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협력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족한 지원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부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고 싶다.

이처럼 현대 경찰활동의 가장 효율적이며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02년 채택한 '범죄예방지침(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에서도 범죄예방 및 억제를 위해서는 사법, 보건, 교육, 주택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민간부문과도 보조를 맞추는 입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범죄가 발생하면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보다는 경찰의 순찰강화와 CCTV 증설만 이야기하는 단선적 분석이었다면, 앞으로는 치안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다기관 협력은 물론이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 협력단체들이나 자원봉사조직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하셨다. 2015년 경북도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함께 도약하자는 다짐과 약속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북경찰」을 다짐하며

란 상처가 남으며 그 상처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도민들은 경찰이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12에 신고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 구조에 총력 대응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둘째, 사회 안정의 초석인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다.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법집행을 통해 불법과 무질서에도 예외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불법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질서 확립도 도민과 함께 꼭 이루어 내

것이다.

지역주민은 이제 더 이상 치안의 객체가 아닌 치안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각급 기관·단체와 다양한 시민·봉사단체들과 소통·협력함으로써 총총한 안전망을 구축, 이웃의 불안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가장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난 한 해, 구미에서 스마트치안을 접목시킨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의 객관적 성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경산·안동 등 5개 경찰서 관할지역 17개소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를 확대·조성할 예정이다. 긴급신고 '한달음 시스템'을 개선한 'Foot S.O.S'는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 출동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적 인프라가 확충되어도 인적 자원의 확보 없



의회운영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 영호남 상생·협력위한 연찬회 개최, 경제자유구역 등 건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3차례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회기협의, 조례안 개정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일차게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소식지·의회보의 배부처 확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체험기회 확대, 각종 인쇄물의 제작비용 절감,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 검토 등이다.

또한 12월 12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중 3급 이상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

조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사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대로 2015년도에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현재 월 2,845,000원인 월정수당을 2,893,33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직전연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하되 상·하한선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3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지난 10월 17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2.28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봉민 협의회장(부산), 홍진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대토론회 개최 계획의 건, 지방의회의 건의·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의 건의안,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촉구 건의의 건 등을 의

결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매달 1회 전국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간의 정보교류와 함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남도의회와 연찬회 개최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지난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일원에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의회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의회운영방향을 토론허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목포, 광양 등 전남도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관광개발 및 문화재보존·관리 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영호남 상생·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9일 홍진규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전남도의회를 방문, 명현관 의장 및 의장단과 양 의회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원들은 첫째 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이회복 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후 울진지구 개발현장을 답사했다. 둘째 날에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전남도의원들과 함께 찾았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의원들이 이번 영호남 상생·협력을 향한 진일보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경북을 곧 답방하겠다"고 밝혔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2. 전남도의회와 연찬회 개최





## 기획경제위원회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014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본청 소관 7개 실·국인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와 경북개발공사 등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3개 감사 대상기관들에 대하여 총 249건의 감사자료요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중점은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예산사용에 대한 법령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시정·처리 18건, 건의·촉구 32건 등 총 50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1.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주요사업 청취회  
2.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  
3. 2014년 주요업무보고

## '15~'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본청 소관 7개, 등 13개 감사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11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시지구인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정비를 위해, '경상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각각 개정했다.

그리고 소관 실·국의 예산 심사에서 배진석 부위원장(경주)은 '2014년도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목표가 6,490개, 실적이 5,780개로 89%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등 일회성 일자리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위원(구미)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월 70만원씩 7개월간 지원금을 받고는 직원을 해고하고, 또다시 인턴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직률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위원(칠곡)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시 천편일률적이지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운치 있고, 맛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

좋은 일자리 창출·실질적 투자유치 집중, 무분별한 용역수행 개선요구  
위원들, 2015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장(포항)은 2014년도 상임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출범 후 6개월을 뒤돌아보면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열정, 재선, 3·4선 의원들의 노련함과 섬세함이 어우러진 멋진 6개월이었다'고 자평하고 '2015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금년보다 더 멋지게 어우러질 수 있는 넓은 마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새해 소망을 밝히기도 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도민의 대변자로서 정책방향 제시

##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2014년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74회 2차 정례회 기간(11. 6~12. 19)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1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시정·처리 24건, 건의·촉구 37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6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관은 자체 감사처분요구 기준의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가족정책관은 소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의거 성비 비율 준수를 지적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도내 민방위급수시설 수가 적은 수준에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급수시설(음용수)의 설치·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복지건강국은 닥터헬기에 대하여 착륙시 응급환자 이송의 성격을 감안하여 옥상 계류장으로 이용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강의 만족도가 낮은 외래 강사의 교체를 통해 교육수준 개선을 지적하였고,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학과의 경우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교수 임용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시 서면의결의 부적절을 지적하고 예산안 의결 등 중요 안건은 실제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의결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경북행복재단은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컨설



## 행감결과, 시정 등 64건 개선요구 시·군간 격차해소, 중복예산 편성 중점 심사

팅과 매뉴얼 개발, 특성화된 직무교육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단 파견 시 관련 분야 전문자원의 선발과 파견을 통하여 사업수행 효과성을 높이도록 조치 요구하였고, 3개 의료원(포항·김천·안동)에 대해서는 의약품 공동구매를 통하여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포항·김천 의료원은 경영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15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안전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군간 도비 편성의 형평성 유지와 사업 분야별 시·군간 격차해소, 유사 중복예산 편성 개선, 행사성 예산 편성 자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 심사를 했다.

아울러, 12월 12일에는 금번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국고보조사업 중·감액분 반영과 집행잔액 정리분 계상 등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 청원 및 조례안 심사

12월 12일 제6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을 검토하고,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전 통수종을 중심으로 교체할 것과 학교·관공서 등은 지역특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인 '경상북도 가솔 및 하업종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포항의료원)  
2. 제274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문화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하였고, 도내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더 많은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며, 산하 민간단체 지원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과 사후 정산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산림자원국 심사에서는 도내 자연휴양림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을 강조하고,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서는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보다 강화할 것과 각종 검사의 민간업체와의 경쟁력 확보 대책, 도민 건강 예방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2월 1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 반납 사례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추계를

##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처리, 건의·촉구사항 등 68건 지적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4회 정례회 활동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경상북도관광공사, [재]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등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감사 결과 문화관광체육국 12건, 환경산림자원국 15건, 보건환경연구원 7건, 산림환경연구원 5건, 산림자원개발원 5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건, 경상북도관광공사 8건, [재]한국국학진흥원 8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6건 등 전체 68건의 시정·처리와 건의·촉구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에서는 양동마을 지붕 교체, 세계물포럼 대회의 철저한 준비, 산림조화과의 수의계약 지양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등 작은 문제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과 최근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본래의 역할 수행에 역점을 둘 것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과 지혜를 발휘할 것과 철저한 조직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위한 깊이있는 예산심사 주민복지 증진 위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제274회 정례회 기간중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각 사업단위별로 세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립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적

당부했으며, 사업지 선정시 사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인만큼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한복착용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용계동 은쟁나무 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한편,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



1.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前처리 과정 청취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농수산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 보조사업 대상자 및 보조금 관리 소홀 지적, 한·중FTA 대책 등 경북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마련 촉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 결과 시정·처리와 건의·촉구사항 등 총58건을 지적했다.

농축산 분야에는 한·중FTA 대책 마련, 보조사업 현장실태 점검 철저, 가축질병 사전방역 관리체계 강화 등을 주문하였고, 해양수산 분야는 연안침식 대책, 영일만항 물동량 증대방안, 독도영유권 해외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였으며, 수감기관 공통사항으로 해당 분야 사업평가시스템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시책 및 소득원 개

## 농축산 분야 예산 시장개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동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심각,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발이 미흡했고, 보조사업의 대상자 및 예산집행 관리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과 함께 경북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11일에는 축산기술연구소 현지확인 개시에 앞서 '한-중 FTA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어업인의 생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전개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 26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액이 도 전체예산 증가율 보다 저조하다면서, 쌀 관세화·FTA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향후 중앙지원 예산확보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12월 12일 농수산위 회의에서는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최근 중국어선의 동해안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신청 저조로 인한 감액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에는 경주수협 활어위판장, 주상절리 해양경관조망벨트조성 사업장, 건천 버섯재배농가 등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과 의정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의 내용으로 워크숍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수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기로 했다. 🍎



1. 행정사무감사
2. 농수산위원회 위원 워크숍
3. 현지확인(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건설소방위원회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구미소방서 행정사무감사  
2. 종합건설사업소 건설장비 현황 청취  
3. 영천 사동2교 개체사업 현장 현지확인

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심사의 결과로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방현장 도착률 향상, 도청이전 기반조성 국비 확보, 낙후된 북부권 지역균형개발 등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12월 12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의한 예산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2개 기관 감사, 집행부와 산하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감사결과 5건의 시정·처리와 건의·촉구 15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21건 지적

사람중심,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만들기에 최선  
경북 북부내륙과 동해안 균형발전, 가장 성공한 도청신도시로!

### 행정사무감사로 정책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총 22개 기관(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방학교, 17개 소방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감사결과 5건의 시정·처리와 건의·촉구 15건, 제도개선 1건으로 총 21건을 지적하고 12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잦은 공사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초래,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소방청사 소유권 미등기 등 재산관리 부적절 등 5건이고 건의·촉구사항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 도로유지 관리 철저, 경북청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추진, 산업단지 조성 관리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강구, 신도시 행정관리 일원화 추진, 소방차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 등 15건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사항으로 과적차량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

### 민생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1-2차 회의를 통해 2014년

### 동절기 대비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8일과 9일에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 및 청도소방서 신축부지 현장, 노후 교량(D동급) 안지교(포항 신광면), 사동2교(영천 임고면) 개체사업 현장을 찾아 동절기 대비 주요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책강구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했다. 요즘 화두가 '안전'인 만큼 주민 안전은 물론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 교육위원회,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인재육성 교육 모색 교육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로 찾아가는 행정 감사



## 교육 전반의 세심한 심사로 명품 경북교육 지원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 촉구

###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선 일선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일선 교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양덕초등학교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불감증 문제를 비롯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편적 이론이 아닌 일부 편

향된 논리가 포함된 독도교과서 사용, 제3자 참가 계약·수의계약 등을 통한 일부 예산 낭비, 자유학기제·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등 당면현안에 대한 준비 부족의 문제점 등 48건을 지적하여 이중 20건은 시정·처리하였고 나머지 28건은 건의·촉구했다.

### 예산안, 동의·조례안 등 심의 의결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동의안 3건과 조례안 7건,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11월 2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변경안'은 학교신설 및 통·폐합, 교명 변경, 일부 중학교 조정 등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였으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학교육성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배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

11월 26일 제2차 회의와 11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입예산안은 법정전입금 규모 현실화, 기타지원금 본예산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당초예산 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학교신설 수요증가, 누리과정지원비 확대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11건 46억 2,702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6억 2,702만 4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12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유보한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 기간별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교육발전 정책 구상 및 학습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취소,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에 따른 감액과 기정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세출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내역의 '안동진명학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을 '안동진명및안동진명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설치'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



1.3.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현지확인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확정 일자리·FTA대책·미래 신성장동력·SOC사업예산 우선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경상북도지사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여 경상북도 7조 3,412억원, 도교육청 3조 5,668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심사했는데, 때론 자장면을 시켜 먹기도 하면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항목별로 따지면서 세밀히 심사함으로써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부로부터도 열정과 수준이 높은 위원회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제10대 도의회의 개원이후 첫 번째인 본예산 심사이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단계부터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2015년도 본예산 심사의 주요방향으로는, 첫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이행 여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중소기업운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소방장비 확충과 안전의식제고 등 생활안전분야 예산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였으며, 셋째, 중국과의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농업과 농어촌을 살리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으며, 넷째, 세입부문에 철저히 심사하여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임대료·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세원의 누락은 없는지 세밀히 확인했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출 준수여부, 유사·중복사업, 사업의 시기와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으면서 예산을 심사했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는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열어 실국별로 심사했으며, 예산안 최종 조정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12월 9일 오후에 구성, 12월 11일 새벽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 경상북도 7조 3,412억원, 도교육청 3조 5,668억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의 최종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비, 기금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과 추가내시액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조정

### 영양 음식디미방,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교급식소 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하여 예산심사 활용

하고, 특히 버 재배농가 특별지원,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등 불가피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삭감없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크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한 긴축예산인 만큼 최종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더더욱 고민이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 현지확인 및 예산안 설명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15년

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양 음식디미방 사업장과 안동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현장을 현지확인하여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교 급식실태 및 신축학교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미중학교 급식소 및 김천 남면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사업효과를 일사하지 않도록 적기에 준공하도록 당부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
2. 구미중학교 급식소 현지확인
3. 영양 음식디미방 사업장 현지확인



도정질문

## 잡은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홀대, 참여율 제고방안 촉구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공사, 부적절한 공사물품 계약방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 등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공사와 관련, 공사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문



김수분 의원(의성2)

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자와 시공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교육청이 잡은 수의계약을 해 해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에서 지역업체를 상당부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 및 물품계약 체결 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1,517건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1,128건이 타 시도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마련해야

최태림(의성)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마련과 농업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및 기숙형 중학교 육성 내실화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최태림 의원(의성1)

도내 일자리 등 산업·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시·군·구·읍·면·동 지역간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보다는 골고루 잘 사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화령인가가 극감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바람직한 발전 모델 정립을 당부했다.

## 최고급 한우 생산율과 농업예산 비율 높이는 방안 마련 촉구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도비 보조금 사업, 농업분야 기금 및 자금지원 관련, 경북농민사관학교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도내 시·군별 한우생산기술 격차로 한우육질등급 출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



이수경 의원(영주2)

적했다. 시·군별 육질등급 출현율 격차는 한우사양관리나 입식우 관리 등 축산기술보급 수준 때문이라면서 경북도 차원의 최고급 한우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의 농업예산은 6,597억원으로 전체 예산 5조 8,954억원의 11.2% 수준으로 이는 농업인구 비율이 비슷한 전남 14.4%, 충남 13.8%, 전북 13.1%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예산 규모가 8,500억원이 적은 전남의 농업예산이 오히려 경북보다 640억원이 많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 경북관광공사 경영실적 제고방안 마련 요구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북관광공사의 부진한 경영성과를 지적하고 경영실적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이슈로 등장한 "관과아"와 관련 경북도 33개 출자·출연기관 중 14개 기관에서 공무원 출신 대표가 임명된 현황과

일부 기관의 방만한 기관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강력히 질타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전문성을 살린 투명한 기관장 임용과 행정 실현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영주3)

## 독도의 실효적 지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논란에 대하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도 발전을 위한 국민모금 운동, 울릉군을 울릉북도군으로 개칭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실효지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산물수급조절과 최저가격 보장차원에서 경상북도 차원의 농

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박현국 의원(영주4)

5분 자유발언

## 균형감각 상실한 예산편성 문제점 개선 촉구

황이주(울진) 의원은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한 노인요양시설의 법인화 개인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지원의 형평성을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시·군간 도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유사 중복예산 편성 개선, 예산편성 절차 준수, 행사성 예산 편성 자체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황이주 의원(울진2)

## 대구 취수원 이전 사전협의 강력 촉구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구미시만이 대구시와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쳐져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낙동강의 수량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로 환경변화가 예견되어,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미로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에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태식 의원(구미1)

## 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가격 인상방안 마련 촉구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성주 1)은 최근 정부가 아세안 비상 쌀비축용 매입가격을 당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계약시 계약금 산정 기준인 57,824원(40kg)에 턱없이 못 미치는 51,868원으로 책정한 것은 결국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지역 편차가 있는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와 같이 전국 동일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도에서는 조속히 실태 파악을 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1)

## 중국어선 울릉도 주변 불법어로행위 심각

남진복(울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중국어선들의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04년부터 북·중 어로협약 체결에 따라 북한해역 입어권을 획득한 중국어선 1천여 척이 동해안에 매년 출몰하여 무차별 쌍끌이 조업으로 울릉도 연근해 오징어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어민 보상책과 강력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및 체계적인 어업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

## 저출산 문제는 워킹맘에 대한 배려로 부터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6년에는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10여년 후에 마주하게 될 절박한 현실임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저출산은 청장년층의 고용과 생활기반의 약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압박으로 각종 연금이나 복지의 축소, 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기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혼 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창규 의원(영주2)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주요 처리안건 소개

##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김정숙 의원 2014. 10. 22.  
-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발의자 : 김희수 의원 2014. 10. 24.  
- 제안이유 :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김명호 의원 2014. 10. 24.  
- 제안이유 : 지역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홍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 지역 관광산업 발전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함. 이에 각 시·군별 지역축제가 크게 양산되고 유사·중복 등의 난립 문제도 등장하고 있음. 이에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스스로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우수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화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이운식 의원 2014. 11. 28.  
- 제안이유 : 기금조성 재원에 도출연금을 추가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 대상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규정함과 아울러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정부의 기금 운용기준에 합당하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 발의자 : 김명호 의원 2014. 11. 28.

- 제안이유 : 도민의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옷의 얼을 계승하며 고유명절 및 평상시에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농수산위원회 2014. 11. 28.  
- 제안이유 :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이름과 관련조항을 변경 적용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11. 28.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11. 28.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명칭과 배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조현일 의원 2014. 12. 3.  
- 제안이유 :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사회일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황이주 의원 2014. 12. 4.  
- 제안이유 : 현행 과세액으로 되어있는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산출세액 적용 세율 시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4. 12. 12.  
- 제안이유 :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근거로 조례일부개정하기 위함이다.  
2015년도 연 34,720천원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인상율을 적용하더라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2,966만원)의 20% 상한액인 3,599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위함이다.

##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014. 12. 19.  
-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 현재 11기(울진 6, 경주 5)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향후 추가9기(울진 4, 영덕 4, 경주 1)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중 또는 계획중임.  
도민의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전건설, 운영, 처분, 해체에 이르는 일관된 원자력발전 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며 이에 정부에 대하여 유치 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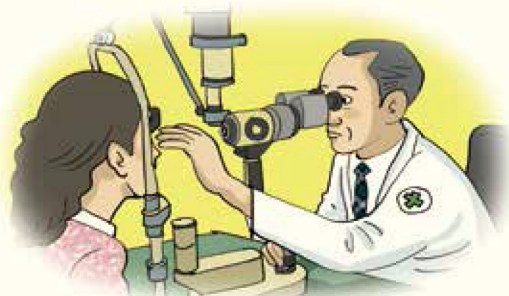
김상수 원장  
(제니스안과)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 70~80%가 안경을 필요로 한다는 통계는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한 반에 안경 낀 애들이 몇 명 없어서 놀림감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나빠진 이유가 뭘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문제가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까운 곳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게임, 휴대폰, 과도한 학습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면 온 세상이 벽으로 막혀 있으니 아이들이 멀리 있는 산이나 구름을 보면서 눈의 조절근육을 편히 쉬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분이라도 될까?

근시가 시작된 눈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며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드물게 어릴 때 안경을 끼다가 눈체조, 침 같은 민간치료를 시력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가성근시(아이들이 가

## 건·강·칼·럼

## 라식수술의 안전성



까운 곳만 너무 오래 봐서 생기는 조절근육의 긴장으로 근시가 아닌데 근시안경을 끼워주면 잘 보인다(함) 혹은 일부 원시성 난시에서 성장하면서 시력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이지 모든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는 결론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안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콘택트 렌즈 아니면 라식 같은 수술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렌즈는 오래 착용할 수가 없고 각막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결국 안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과연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이 안전 할까? 약 20년전 초기 수술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었다. 모든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에 대한 기준이 없던 시절이었다. 거의 모든 눈을 용감하게(?) 수술해서 일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수술 전 2시간에 걸쳐 철저히 모든 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시술을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수술을 하지 않는다.

소중한 눈을 다루는 라식수술이 일부 대형병원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수술이 있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검사와 시술, 충분한 수술전 상담이 라식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레이저와 검사 장비의 발전으로 수술 전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99%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매우 만족감이 높은 시술이다.

제니스안과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제니스 상가 3층 ☎053-743-1828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http://council.gb.go.kr>

# 새 지평을 여는 2015년! 도민과 함께 희망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도약의 원년 2015년, 신도정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희망 경북!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무한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일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양의 해를 맞아,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